

피팅겐대학 도서관 한국 고소설 자료수집에 대하여

이 회 우*

한국의 傳統的인 이야기文學 古小說(或은 舊小說, 古代小說)은 15세기 金時習의 金瓶梅에서 始作하여 1894년 甲午更張 前後 新小說이 대두할 때까지 나온 漢文이나 주로 한글로 씌어진 한국 散文文學의 한 文學장르를 말한다.

이는 原來 說話로 宗教的인, 民俗的인 그리고 歷史傳記的인 主題(Motiv)를 中國의 小說文學의 範例에 따라 文學化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 古小說의 著者가 大部分 알려져 있지 않다.

韓國古小說의 특징은 이 小說들의 大部分이 한글로 씌어졌다는 것과 이로 因해서 特히 서민층에서 널리 愛好·愛讀되었다는 것이다.

한국 古小說의 坊刻本 出現은 바로 한국에서도 書籍의 商業化가 始作함을 말한다. 이로 인한 古小說의 보편적인 독자 보급은 數 많은 筆寫本을 내어 놓았고 이어 西歐의 新印刷機 도입에 의해 소위 舊活字本의 小說本(딱지本)이 나오기 始作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古小說의 題目은 약 600여개**로 推定되는데 또 筆寫本·坊刻本·舊活字本 모두를 합쳐서 약 2,500~3,000個가 存在하는 것 같다.

한국 고소설의 體系的 연구가 실제로 시작되는 것은 193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그 이후로 한국 고소설에 대한 關心이 한국내에서만인

* 피팅겐 대학

** 金起東: 순 한글 소설의 數는 약 300個.

아니고 外國에서도 증가되어 갔다. 주지의 사실과 같이 이 한국 고소설의 목록은 不幸하게도 모두 外國人들의 손에 의해 저작되었다.

불란서의 manrice Courant의 한국저서목록 Bibliographie Coreénne를 中心으로 日本의 Maeue Kyōsaku의 古鮮冊譜 kosen sappu, 近來 1960年度에 와서는 英國의 韓國學者 Skillend에 의해 처음으로 한국 고소설의 종합목록이 나왔다.

필자가 이 Skillend의 古小說目錄을 읽으며 그 當時 Skillend가 이용 못하던 國立圖書館이나 金東旭氏의 古小說冊들이 빠진 것 외에도 이것저것 제목이 빠진 것을 발견 유감히 생각하여 이를 追加할겸 독일 괴팅겐대학 도서관에 現在 世界 여러나라에 散在해 있는 한국 古小說의 자료를 마이크로 필름으로 하여 가능한 한도내에서 한곳에 모두 수집해 볼 계획을 세워 보았다.

이것이 바로 괴팅겐 대학 도서관의 한국 고소설 마이크로필름 수집의 動機가 된 것이다.

우선 독일내의 도서관 제도에 관해서 몇마디 하려고 하는데 독일은 독일의 歷史的인 條件下에 現在의 독일연방공화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로 후작들이 여러 후작령을 이루어 응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자랑삼아 경쟁으로 세운 개인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구라파의 영국이나 (British library) 또는 불란서(Bibliothèque nationale)와 같이 전국을 대표하는 국립도서관이 없었다. 이것이 독일 도서관의 특점으로 1, 2차의 세계 대전을 치루고 국가의 재정곤란이 심할 때 국가적인 도서관 정책의 하나로 "특별학문분야 도서의무수집 책임지정 도서관"제를 만들어 적은 국가 재정이거나 이를 지정 책임도서관에 집중으로 재정협조를 주어서 전후 전국 도서수집(특별히 외국서적)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외국의 서적으로 1930년 후에 출판된 서적에는 서적매가의 2/3를 부담하되 1/3은 당책임도서관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금액적인 限定이 없을 정도로 독일 어느 학문分野 지정 도서관에 세계 어

는 나라에서 出刊되어 나온 어느 冊이든 一本 가량은 사도록 하여 이를 全國 도서관에다 필요에 따라 대출 공급하게 했다.

多幸히도 독일 피팅겐 大學 도서관이 二次大戰後 戰亂을 비교적 무사히 넘겨 도서관 장서의 소실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關係로 독일학술진흥회로부터 거의 20餘個의 학술분야를 지정 받게 되었다. 이 중에서 하나가 우랄·알타이 어문학으로 그러니까 한국 어문학이 이 알타이 어문학 속에 속하게 되어 서백림의 푸로이쎄아 주립도서관과 병행으로 한국 어문학의 자료를 지정 책임지고 수립하게 되었다. 이 수집 프로그램의 하나가 한국 고소설자료 마이크로 필름이다.

1982년 初 독일학술진흥회(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에 이를 제안 근 8萬여 마르크의 재정협조를 받게 되었다. 이 협조금의 지출이 2年으로 제한되어 2년이란 짧은 時日內에 우선 세계 각국에 산재하는 고소설의 필사본을 위주로 해서 모으기로 하였다.

그래서 이 도서관장의 명의로 日本, 美國, 英國, 불란서, 소련, 한국 등지의 도서관이나 個人에게 우선 협조의 서신을 보내고 이의 反應을 보려고 했다. 그러나 최초의 회의감도 없지는 않았지만 의외로 거의 모두가 쾌락의 회답을 보내 온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중에서 가장 非協助的이던 것이 연세대학 도서관이었다.

특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은 서로의 자료교환을 제안함으로써 피팅겐대학 도서관(그러니까 筆者가)에 이 두 도서관에 교환자료로

- 1) 독일내의 1982년도까지 나온 한국학관계 독일대학 박사학위논문 전부, 이 중에는 東獨의 것과 오지리, 스위스도 포함.
- 2) 1982년도 까지 발표되어 나온 소련내의 한국학관계 자료, 이 연구는 주로 Volodina의 “Bibliografija Korei 1917~1970” Moskva 1982를 기초로 선택, 이 이외에 19세기의 문헌들도 포함.
- 3) 구라파에서 1982년도까지 나온 한국학 관계논문저들(동구라파도 포

함).

등의 자료로 마이크로 필름으로 제작하여 제공하게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일 괴팅겐대학 도서관이 한국에서 가치 있는 古小說 자료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한국에 아직 없던 구라파(조선 포함)의 한국학관계 자료도 총 수집 제공하게 된 것이다.

1982년에서 1984년 여름까지의 괴팅겐대학 도서관에 이렇게 해서 수집된 한국 고소설의 제목들을 본다면,

- | | | |
|---|-------|------------|
| 1)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의산문고도 포함) | 119제목 | (14 recl) |
| 2)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규장각/일사/가람문고포함) | 96 " | (47 recl) |
| 3) 라손장본에서 필사본만 | 422 " | (45 recl) |
| 4) 舊 장서각 장본(現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도서관), 낙선재장본 | 94 " | (153 recl) |
| 5) 한국정신정신문화연구원 도서관장 마이크로 필름 | 49 " | |
| 6) 국립중앙도서관(주로 필사본) | 308 " | (70 recl) |
| 7) Toijō Bunkō (Maema 장본포함) | 50 " | (20 recl) |
| 8) Harvard Yenching Library | 46 " | (7 recl) |
| 9) Britisch Library (필사본만) | 3 " | |
| 10) 영남대 도서관(동빈문고포함) | 55 " | (7 recl) |
| 11) 조선 Leningrad 조선과학원 otsnor 민족연구소 도서관(Aston 장본) | 4 " | |

- 12) 불란서 파리—동양어학연구소 약 60제목

등으로 합 약 1,300여 제목이다

특히 이 수집 자료중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처음으로 조선에서 4개의 고소설을 복사해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조선의 한국학자들이 이미 이 Leningrad의 Aston 장본에서 춘향전, 쌍천지봉, 최충전등은 해설과 번역으로 이를 출판한 일이 있고 또 이들 장서목록을 Petrova의 "opisanie pis'mennykh pamjatnikov korejskoj kul'tury" "한국문화의 문헌유물의 기술" Moskva 1963에 의해 우리는 이미 알아오고 있던 바이다.

이번 4개의 고소설 중 슈스유문은 현재 한국이나 外國에도 없는 것으로 특유의 것이다. 이 밖에 동유기, 보우기우록, 화정선행록 같은 것은 비록 한국에 이의 異本들이 存在한다고 해도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독일 동양학자 von der Gabelentz가 소장하던 한국 고소설 40개(이중 항주기연, 월황전은 유일본)는 동독의 여러 지방도서관과 von der Gabelentz가 살던 곳의 박물관, 도서관*에다 문의해 보았으나 성과가 없었다. 필자의 생각으론 이 Gabelentz의 소장본이 2차대전 중에 소실되었든가 그렇지 않으면 戰後 압수되어 어느 지방 도서관에 묻혀서 목록화도 되지 않고 잊혀 버려진 것 같다.

예로 삼국지, 서유기, 슈호지, 구운몽, 양풍전, 제마무전, 당태종전, 설인귀전, 탁분양전, 옥주호연, 금함명기, 진대방전, 숙향전, 장충운전, 장경전, 현수문전, 장한절혼기, 황운전, 조웅전, 금방울전, 원봉기, 양백산전, 백학선전, 심청전, 김원전, 소대성전, 징세비태록, 임진록, 춘향전, 신미록, 장화홍년전, 흥부전, 흥길동전, 적성의전, 숙영낭자전, 남정팔난기, 삼설기, 용문전, 항주기연, 월황전(月黃傳) 등이다.

Courant이 한국서지를 쓸 때 이 Gabelentz의 한국고소설 제목을 제공받아 인용한 것으로 보아 Gabelentz의 소유에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cf. Courant, Bibliographie I, Roman 條 전설류

No.750~945, 3, 347~3, 366

다음에 Leningrad의 Aston 소장본 古小說 네 개를 피팅겐대학 도서관

* Leipzig

고소설 수집중의 異本들과 비교해 본 결과를 간단히 언급해 보겠다.

㉔ 쉬스유문, 슈스유문, 隋史遺聞

번역 小說로 반홀립체의 깨끗이 쓴 筆寫本이다.

모두 12冊에 12行 25平均의 字로 Petrova에 의하면 총 594張이다.

이는 Aston장서의 하나로 筆者不明의 23×19.5cm 本元이 21×17cm 크기의 韓本冊이다. 張數는 적혀있지 않다.

이 슈스유문에 대해서는 Courant oui Macma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이전에 이미 한국을 떠났던 小說冊으로 본다.

㉕ 동유기 東遊記

총 6冊의 回章 소설로 현재 Aston 소장에는 冊 1과 5가 빠진 4冊의 51, 48, 52 그리고 50張의 本으로 10行에 平均 18字의 홀립체로 쓰여져 있다. 每冊 첫장에 英國阿須頓藏書란 도장이 적혀 있다. 筆記로 卷 2의 끝에 "이칙의 글씨 좀 써다고 욱말쇼"라는 文句의 뒤에 戊寅 年月日이 적혀 있다. Petrova는 이 序記로 1758이나 1818로 적어 놓고 1758이 가장 가능한 해라 부가했다. Skillend의 「고대소설」에는 이 Leningrad 本이 唯一本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의 異本으로 한국에 고려대 도서관本 1冊 45張 무게 초서의 전사본이 있는데 11行 20字 内外로 筆寫記에 세 갑주(1864) 스월초이일 함흥유서라 적혀 있다. 이는 回章小說이 아니라 Leningrad本과는 완전히 다른 異本이다.

㉖ 보은기우록

보은기우록에는 여러가지 筆寫本의 異本이 있는데,

- 1) 라손장의 사본 1冊 52장으로 題本에는 報恩奇遇錄이라 되어 있고 本文 始作에는 현봉쌍의록이라 되어 있다.
- 2) 의산문고(고대) 1冊
- 3) 영남대(동빈문고) 보은기우록 권지구 10行 18~19字 39장의 사본이다.
- 4) 장서각 18卷 총 556張의 필사본 10行 20字 25枚 内外

5) Leningrad 깨끗한 전사체(궁체)

장서각의 18卷本과 Leningrad Aston장 18卷本은 서로 비교해 보니 철자법 뿐 아니라 문구에도 틀림이 나타난다. 즉 권일의 끝 구절에 “—초목을 연하게／하면 결벽을 통헐거시로되 석남하회하다”라고 끝나는데 Aston本은 「…토목을 연키 하며, 혈벽을 통헐거／시로되 토구비뵤 줄연 이헐혹할배 아니라 분부대로／하여 분분이 꾸짓더라 시시의 위원의 발소 〇 즈틀츠마／꾸지저왈 쇼티 엇디 말훈양하여 남을 마르치논 하더라.」

이 두 책은 異本으로 서로 배껴진 것이 아니라 筆寫의 대본이 서로 달랐던 것 같다.

그리고 동빈문고의 卷九의 1冊과 Leningrad의 Aston本과 비교해 보니 「츠설 빅소제 가스를 다스리되 원의터회위중／하고 비북이 연불하여 화괴 응소하더니……」 하고 동빈 本은 시작되는데 Aston本 卷九는 「지설 위성이 속너를 마자 군지심가의 즐기물엇／고 최봉치비의……」라 시작하는 것을 보면 내용적으로 약간 다른 異本인가 보여진다.

Aston本의 卷 2에(卷 1에도 그렇지만) 낙서가 많은데 그중 壬戌 云云 적어 놓은 것을 보면 이 筆寫本이 1862년전에 쓰여졌던 것이라 보인다.

① 화정선행록에는 현재까지 3개의 筆寫本이 存在하는 것 같다.

장서각의 和靜善行錄 卷七, 一冊 45장本과

花鄭善行錄15卷 약 235장本이 있다.

그리고 Leningrad의 Aston本으로 和靜善行錄 15卷 770張本이 있다. 이는 漢學제목이 장서각의 45장 1冊本과 同一한데, 완전히 다른 異本이다.

장서각의 15卷 本과 Aston장의 15卷과는 서로 비교해 보니 두 필사본의 필체가 특히 툴을 쓴 ‘툴’ 형이 同一함이 눈에 띈다. Aston本의 卷 7과 장서각 15卷本의 卷 1에 나오는 異型을 들어 보면,

| | |
|-----------|----------|
| Aston 의도훈 | 장서각 의의／훈 |
| 부인딘시논 | 부／인진시논 |

| | |
|---------------|------------|
| 문조를 마르치매 | 문조를가르치미 |
| 므츨내슈등원혼 | 므츨니슈중원혼이된가 |
| 이된가하히 / 룰분석하라 | 하히를분석 / 하라 |

卷 15 Aston

| | |
|----------------------------|-----------------------------|
| 화경선형늑 권지 십오 종 | 화평선형늑 권지십오 |
| 머므러 궁녀등을 각각 경계 / 하야 스일을 | 머므러 궁녀등을 다 / 각각 경계하야 쇼임을 |
| 아츨 쇼세툼 | 아츨 쇼세 / 룰 |
| 삼시 문안 글월은 | 삼시문안 근월 / 은 |
| 다시 / 선의궁의 | 다시 선희궁의 |
| 징계 하야 범바들지어다 | 중계 하야 본바들지어다 |

이렇게 단어까지도 틀리는 것을 보면 이들의 대본이 서로 다른 異本이었던 것 같다. 이 2本の 筆體가 거의 같은 筆致로 한 사람이 이 異本을 筆寫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을 확증하기 爲해서는 15卷 全部로 다 비교 연구해야 하리라 본다.

그리고 장서자의 卷 7 1册 本과 앞의 두 15卷 本中 7卷만 비교해 보니, 이 1册本の 筆寫致는 매우 유치하고 어느 台本을 배낀것 같다.

| 즉 | 1책본 | 장서자 | Aston |
|---|-----------------|--------------------|---------------------|
| | 45枚 11行 22字 鈔첩자 | 48枚 10行 20字 | 52枚 9行 21字 |
| | 첫어두머리 | 홀림체 | 홀림체 |
| | 화명선형늑권지칠 | 화명선형늑권지칠 | 화경선형늑권지칠 |
| | 화설츄공즈님경연의즈논 | 화설츄공즈님경연의 | 화설츄공즈님경연 |
| | 즈영이니부풍모습하야 / | 즈논즈영이니부풍 | 의즈논즈영이니 |
| | 신치동인 하교 | 모습하야 / 신치동인 하 교 | 부풍모습하야 / 신치동인 하교 |

끝으로

—고아므려나그용화나 —고아므려나그용화나 —하교아므려나

훈번귀경코져 허더라 훈번구경코져 허더라 그용화나훈번
구경코져엇더/라

이상 몇가지의 짧막한 本文(Text) 비교에서도 보여준 것과 같이 古小說의 본격적 연구는 本文 비교에서 최초의 小說 대본을 찾아 내는 데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個個小說들의 本文(Text) 변천 발달과정을 밝혀 내는 데에도 있다고 하겠다.

한국 고소설 연구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는 무엇보다도 이 고소설의 총자료를 한곳에 다 수집하여 이들을 目錄化하고 또 이들 자료를 국문학 연구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제공해 주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요즘 몇년전부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옛날의 장서각 장본(낙선재 필사본) 古小說을 기본으로 하여 全國的으로 수집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의 총수집 완성을 시급히 바라는 바이다. 회귀본이라 하여서 개인서지학자들의 장서내에만 묻혀 이의 학문적인 사용에 이용되지 않는다면 그 회귀본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 보겠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1983년도에 “한국 고소설 목록”이 출판되어 나왔는데 이러한 종류의 목록이나마 한국에 아직 없었다 하는 데서 환영할 수 있는 일이다. 오로지 간단한 目錄에 不過한 目錄을 刊行하는 外에 이들의 書誌學的, 국문학적인 목록 편찬도 힘써야 한다고 보겠다.

독일의 피팅겐대학 도서관에서 一次로 한국 고소설의 필사본 수집이 어느 정도 完結되면 二次로 舊活字本 딱지본들도 수집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이 수집된 필사본·木板本の 고소설은 서지학적으로 目錄을 저작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다.